

特輯論文

칼빈의 교회론

(J. Calvin's View on Church)

이 근 삼

(고려신학대학장 · 본연구소 소장)

차 례

- | | |
|----------------|-----------|
| 1. 교회의 본질 | 4. 전투적 교회 |
| 2. 참된 교회와 그 표지 | 5. 결 론 |
| 3. 교회의 규율과 질서 | |

칼빈의 신학의 근원은 성경이었다. 그리고 그의 신학은 초대 교회 신조들의 정통성과 어거스틴, 루터, 부체르의 신학 사상에 힘입은 것이다. 우리는 그의 불후의 대작인 기독교 강요에서 그의 교회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교회의 본질

(1) 성도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을 시작함에 있어서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요약하였다.¹⁾

그는 교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무지하고 나태한 속성이 있는고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이 생겨난 후 그 신앙이 점점 돈독해지고 목적을 향해 가는 데에는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²⁾고 함으로써 어떠한 사람도 교회의 보살핌에 끊임없이 그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믿음의 양육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외적 수단이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키움에 있어서 단번에 온전케 하실 수도 있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장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교회의 양육 아래 두기를 원하셨던 것이다.³⁾ 하나님은 성도가 교회 외의 어떠한 곳에서도 영적으로 자랄 수 없게 하셨다. 어머니가 우리를 태 중에 잉태하여 낳은 후 우리를 젖 먹여 길러 주었듯이 우리는 육에서 벗어나 천사와 같이 될 때까지 (마 22:30) 계속적으로 교회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며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이사야(사 37:32)와 요엘(욘 2:32)이 증거하듯이 사죄나 구원을 바랄 수 없다.⁴⁾ 마치 사도 요한이 밝힌 것처럼 성도는 오직 교회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요 10:9).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출발과 동시

에 사방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만약 우리가 죽음의 세상에 침몰해서는 안 될 때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며 그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현존의 장소로서의 교회는 단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와 우리 죄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만나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교회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⁵⁾

하나님은 복음적 목회가 계속되게 하기 위하여 보물을 교회에다가 주셨으며 그 임무를 목사와 교사에게 맡기셨다(엡 4:11). 그리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셨다. 즉 믿음에 있어서의 거룩한 일치와 옳은 질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⁶⁾ 그러기에 누구든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해지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입신여기는 자마다 영적으로 굶어죽어 마땅하다고 하였다.⁷⁾ 그리하여 칼빈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장소에서만 인간적이며 지상적인 조건 안에서 우리와 만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옛 구절을 다시금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⁸⁾

결국 칼빈에 있어서 교회는 말씀을 소유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신앙을 유지시키고 지탱시키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곳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의 품안에 안기어 있는 한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며 이 진리가 교회의 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시켜 나가는 것이다.⁹⁾

1)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는 사상은 이미 교부 시대로부터 있어 왔으며 어거스틴도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2) *Inst.* IV.1:1.

3) Niesel, Wilhelm, *Die Theologie Calvins*
이 종성 역, 「칼빈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73, p. 185.

4) *Inst.* IV.1:4.

5) Niesel, 전제서, p. 185.

6) *Inst.* IV.1:1.

7) *Ibid.*

8) Niesel, 전제서, p. 185.

9) *Inst.*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도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우리와 떠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세우신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연합이 완성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며, 머리 되시는 그에게 있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장하며 따라서 피차 일치에 이르게 된다.¹⁰⁾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머리와 몸에 비교하여 교회의 본질을 설명한다. (엡 4:4; 5:23-30)

바울은 ‘머리’(κεφαλή)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주권성을 강조한다(엡 1:22).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의 신적 임재와 능력의 충만하심으로 채우신다(3:18).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4:13). 이 지체 개념에서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ἐνχριστῶ)이다. 이 표현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영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성을 잘 나타내 준다.¹¹⁾ 교회를 몸에 비유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중심의 본질성과 그리스도와 성도의 불가분의 연합성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¹²⁾ 그리스도의 몸이 온 성도의 공동체라는 개념은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는 견해와 필수적으로 결부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갈 4:19). 그가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봉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셔야 한다. 그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사 지배하게 하시지 않는다. 각자는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특수 은사를

10) Niesel, 전게서, p. 187, *Inst.* IV. 3:3.

11) 「신학지남」, 제42권, 제3집(1975, 가을), p. 11.

12) *Ibid.*

받는다. (롬 12:6; 엡4:7)¹³⁾

칼빈은 지체 개념의 이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격성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질서를 강조한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공통의 아버지요, 그리스도가 공통된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들은 형제애로써 함께 결합되며 유무상통한다는 사실은 당연한 일이다.”¹⁴⁾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사와 이 각자의 은사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봉사에 있어서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성과 상호 의존의 강조는 교회에 대한 어떤 개인의 독재나 횡포가 불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확실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상하의 질서가 존속하고 있다. 또는 교회를 지도해야 할 파제가 있다. 칼빈은 이 파제가 꼭 필요하면서도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강조해서 지적한다. 하나님이 ‘직책을 떠맡긴 사람’을 우리 위에 두신 것은 ‘그의 권리가 손상없이 지속되게 하시려는 것’뿐이다. 이러한 사실이 동화시되고 형제로서의 상호 관계와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교회의 지체들 사이에서 파괴된다면 그때 단지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 주님의 교회로서의 교회의 가장 내적이고 본질적인 뜻에서 가장 깊게 상처를 입을 것이다. 교회의 질서와 다스림이 교회의 이 본질에서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¹⁵⁾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질서는 어디까지나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의 파생에서 오는 성도의 수평적 교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일지라도 교회 이상의 것일 수가 없다.¹⁶⁾ 이것은 교회를

13) Niesel, 전게서, p. 187.

14) *Inst.* IV. 1:3.

15) Niesel, 전게서, p.188.

16) 「신학지남」, 전게서, p.12.

14 교회 문제 연구

개인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두는 교회 지상주의에서 온 것은 아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모든 개인이 주님을 배우고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올바른 방도를 사람들은 다만 그에게서, 즉 주 그리스도에게서만 배울 수 있다.¹⁷⁾ 이렇게 지체로서의 교회는 긴밀한 교제 속에서 성장의 목적성을 전제한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데서 살아 있는 몸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3)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칼빈은 또한 교회를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로서 묘사했다. "교회란 가건적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에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선민을 가리킨다."¹⁸⁾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선택(Secretelection)이다."¹⁹⁾ 하나님의 선택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로서나 개인으로서나 그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우리는 교회로서 그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가 전부의 소유주이시다. 그분만이 교회에 대해서 최초의 말과 최종의 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백성을 아시며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 "그는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²⁰⁾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 이성과 생각에 의해서 교회를 택함을 받은 자들의 집합체로서 이해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것과 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그러한 교회의 단일성을 마음에 가지지 않는다면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²¹⁾ 이와같이 선택에 근거한 교회관은 우리를 한가

한 사변이나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며 자기의 종교적 소유물에 자족하고 안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는 자에게 확신과 안정감을 준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속 한 지체라는 자각을 가지는 사람은 은총의 선택 교리에 의해서 해를 받지 않으며 도리어 믿음의 확신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구원은 확고부동한 기초를 지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기관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며 그의 영원한 섭리가 그러하듯이 흔들거리나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선택 교리야말로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서 앗아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확고하게 신의 확신에 거하게 한다. 이러한 은혜의 선택에 관심을 두는 것은 교회를 더욱 약화시키는 것이지만 교회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강하게 된다. 이 교리는 교회로부터 그것의 모든 지주를 빼앗아가는 것이나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의 모든 공격에 대하여 불굴의 체제를 확신케 한다."²²⁾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의 제목을 '참된 교회와 모든 신자의 어머니 되는 그 교회와의 연합할 필요성에 대하여'라고 말할 때 이는 잠정적인 질서를 가진 교회와 영원한 질서를 가진 교회와 신자가 서로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모두 교회의 머리되신 한 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으며 (엡 1:22f) 교회에 주어진 신앙의 통로를 통해서 모든 신자가 신의 양육을 받으므로 모든 신자는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한 몸으로 성장되고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한 성령 안에서 살게 된다. 이것은 그들이 동일한 영생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

17) Niesel, 전계서, p. 188.

18) *Inst.* IV. 1:2.19) *Ibid.*20) *Inst.* IV. 1:2.21) *Inst.* IV. 1:3.

22) Niesel, 전계서, pp. 188-189.

도 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²³⁾

2. 참된 교회와 그 표지

칼빈은 참된 교회를 말하기 위하여 가건적 교회와 불가건적 교회의 개념을 다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비록 유형의 교회밖에는 다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건적 교회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시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표준적이며 완전한 것이 없기에 그것의 원형이며 그것을 제약하는 불가건적 교회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²⁴⁾ 불가건적 교회는 이같이 선언을 선포하여 성례전을 집행하는 교회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것을 제한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심판한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의 경건자와 같다. 그것은 보이는 교회의 구성 원리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통제하는 원리이다.²⁵⁾ 칼빈은 여기에서 한편으로 로마 가톨릭의 오류를 반박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형 교회를 부정하는 무교회주의를 배격한다. 참된 교회는 결코 타락하고 불완전한 유형 교회와 분리하여 독립해 있는 추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현실 교회를 구원의 완전한 기관인 것같이 가르치며 사도의 계승권으로 지탱해 가고 복음의 순수성과 그리스도의 최후적 권위와 지배를 문제삼지 않는 로마 교회적 기구도 아니다. 현실 교회를 비판적으로 통제하는 불가건적 교회 곧 그리스도 자신을 문제삼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²⁶⁾ 이 참된 교회는 곧 하나님의 숨겨진 선택에 근거하

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감춰져 있다. 그러나 가건적 교회 중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야 한다. 가건적 교회가 참교회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아래서라는 보유적인 조건에서 성립된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빌어서 그것을 '사랑의 판단'으로 되어진다고 한다.²⁷⁾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점에서 신앙의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다. 사랑의 판단으로 충분하다. 즉 종교적인 확신이 아니지만 사랑에 있어서 형제가 교회의 성원임을 승인해야 한다고 한다. 보이는 교회에 있어서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그 모임의 크기나 그 성격을 보고서 주의 교회가 현재 눈앞에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기 어렵다. 교회를 인식하는 순수한 표지는 교회의 수중에 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자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틀림없는 인식의 표지는 은혜의 수단이지 결코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다.²⁸⁾ 그러나 내적으로 교회는 바밀된 선택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를 갖고 있는 반면 외적으로는 분명히 세상이 알아볼 수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칼빈은 교회의 인식 표지로서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만을 인정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며 들려지고 성례전이 그리스도의 제정에 따라 집행되는 곳에 의심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이것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내가 있다는 약속이 거짓되지 않기 때문이다."²⁹⁾ 칼빈이 교회의 인식 표지로서 다만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만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칼빈의 교회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신의 계시이며 결코 종교적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논술이 아님을 명백히 말해

23) *Inst.* IV. 1:12.

24) 전 경연, 전게서, p. 231.

25) *Ibid.*, p. 234.

26) 전 경연, 전게서, pp. 234-235.

27) *Inst.* IV. 1:8.

28) Niesel, 전게서, p. 193.

29) *Ibid.*, p. 194.

준다. 그러한 경우에 설교와 성례전이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거한다는 사실이 고수되어야 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구주와 주로서 인정되며 높임을 받을 경우에만 그리스도의 참교회가 있다. 즉 그리스도의 주권과 제사장직이 중요하게 취급을 받는 곳에 교회가 선다. 그리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는 곳에는 들겠다는 의지와 순종의 의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든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왕이 되신다. 왕으로서의 구원의 초대를 받고자 할 때 우리는 왕의 백성인 교회에 부닥치게 된다. 이처럼 칼빈은 교회의 표지에 대한 아우구스부르그 신앙 고백의 표현을 그저 단순히 이어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엄격히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논설하고 있다.

3. 교회의 규율과 질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2장에서 교회 권징론을 다루면서 교회의 규율에 관한 토의를 하고 있다. 어떠한 사회보다 가장 질서가 있어야 할 교회에서의 규율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가 교회의 영혼이라면 규율은 교회의 끈에 해당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몸의 각 지체는 각각의 위치를 지켜서 서로 결합되는 것이다.³⁰⁾ 그러므로 규율은 그리스도의 교리에 반대하여 횡포를 부리는 자들을 단속하며 길들이기 위한 '고비'와 같은 것이며 혹은 뜻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는 '박차'와 같은 것이며 때로는 심한 타락에 빠진 자를 유순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의 은화함으로써 징계하는 '아버지의 채찍'

30) *Inst.* IV. 12:1.

과 같은 것이다.³¹⁾ 만일 교리의 설교는 있어도 개인적인 경교와 징벌과 그밖에 교리를 지칭하여 이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한 종류의 보조수단이 결부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방종에 빠진 것이 되어서 해체되고 말 것이다.³²⁾ 그래서 말씀이 모욕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온전한 성례전을 이루기 위하여 목사와 장로들은 교인 각자를 돌보아야 하며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훈계해야 한다.³³⁾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에게 알려 주는 것이 교회 훈육의 근본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버리는 자는 교회의 모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참소를 받으며 경멸을 당하기 때문이다.³⁴⁾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규율이 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규율은 교회 안의 도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흠과 티가 없는 교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교회가 참교회인가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상태에 있는가 없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³⁵⁾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가령 거기에는 가지가지의 부끄러움과 약점이 있다해도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또한 위료가 되는 지식이다. 이 지식은 교회의 생에 대한 주의와 교인 각자에 대한 규율의 임무에서 우리를 해방하지 않는다. 이는 어떤 도덕성 때문이 아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만약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그가 선포되기는 하지만 그의 주권이 부인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

31) *Inst.* IV. 12:1.

32) Niesel, 전계서, p. 196.

33) *Inst.* IV. 12:2.

34) *Inst.* IV. 12:5.

35) Niesel, 전계서, p. 197.

리스도에게 대항하는 자들에게 아무 대책도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때에 교회는 큰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규율의 표지를 표준으로 삼지는 않았다. 여기에서 그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관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교회의 존립은 규율의 적용없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 규율은 각자를 그 자리에 있게 하면서 몸의 지체로서 결합하는데 끈과 같은 것이다.³⁶⁾ 만약에 교회가 각자를 제멋대로 방임해 두거나 인간의 주권을 교회 안에 있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주의 교회인지 문제가 될 것이며 그의 완전한 해체가 목전에 임박하게 될 것이다.³⁷⁾ 칼빈이 교회의 본질을 논할 때 또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교회가 제도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어머니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즉 교회에 맡겨진 임무에 의해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 칼빈은 이 임무를 다만 그리스도와 그의 주권을 선포한다는 단 하나의 의미로 보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만 교회가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올바른 제도가 주어지려면 모두가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교회가 그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교회가 이와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하여 그 안에서 각자가 각각 받은 은혜에 따라 다른 지체에 봉사할 때이다.³⁸⁾ 그리하여 칼빈은 에베소서 4:11 이하에 근거하여 교회의 4가지 직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가 말한 이러한 직책은 어떤 하나의 체계나 기정 사실이 아니라 신약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봉사를 의미한다.³⁹⁾ 그러므로 그는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대신 교회 안에서 수행되어

36) *Inst.* IV. 12:1.37) Niesel, 전개서, p. 198, *Inst.* IV. 12:1.

38) Niesel, 전개서, p. 199.

39) *Inst.* IV. 3:2.

야 할 임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말한다.⁴⁰⁾ 가장 중요한 봉사직은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을 집행하는 목사직이다.⁴¹⁾ 이것의 우위는 교회의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목사란 다만 '성령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성경 교사의 직책인데 이들은 교회의 설교를 성경에 비추어 언제든지 검토하여 장차의 설교자 양성을 위하여 노력할 과업을 가지고 있다.⁴²⁾ 목사직과 성경 교사직은 근본적인 것이다.⁴³⁾ 장로의 직책은 목사들과 더불어 규율을 시행하고 교인을 권고하여 교회 안에 머물게 하며 또한 무법한 자를 제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게 된다.⁴⁴⁾ 끝으로 집사직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의 궁핍과 곤고를 측은히 여기시며 우리의 지상의 인생고를 가볍게 해주시는 것을 증거한다.⁴⁵⁾ 이러한 직분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무익한 그릇이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권능과 영예를 갖는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이러한 간접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직분의 권위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그 전권과 권위는 그 직책에 속한다. 정확하게 말해서 적당한 사람이 봉사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바 그 말씀에 속하는 것이다.⁴⁶⁾ 아무도 이 권능과 권위를 자기의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직책을 받으려면 장본인이 올바른 부르심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⁴⁷⁾ 칼빈에 의하면 이 소명은 선거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 선거는 인

40) Niesel, 전개서, p. 200.

41) *Inst.* IV. 3:4.42) *Inst.* IV. 4:1.43) *Inst.* IV. 3:4.44) *Inst.* IV. 3:8.45) *Inst.* IV. 3:9.

46) Niesel, 전개서, p. 202.

47) *Inst.* IV. 3:10.

간이 행하나 그 결정은 모든 직분에 필요한 은사를 분배해 주시는 교회의 주가 스스로 내리신다.⁴⁸⁾ 그리하여 한 직분의 소지자는 스스로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직책을 지키는 것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의 책임이다.⁴⁹⁾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며 이 질서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인간을 매개로 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려는 데서 시작하며, 그가 다양한 은사를 다른 직책에 주셔서 우리를 하나로 결합시켜 서로 봉사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에 그의 조직과 통일성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질서이다.⁵⁰⁾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과 싸움을 벌인 것이다.⁵¹⁾

4. 전투적 교회

교회는 인류 사회와 인류 역사 안에 세워진 신적 기관이다.⁵²⁾ 누구든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마 12:30)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불가피하게 적그리스도와 대결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과 전투하게끔 되어 있다.⁵³⁾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했다(딤후 4:7). 칼빈은 교회가 세계 안에서 투쟁하며 장차도 투쟁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⁵⁴⁾ 이와 같은 교회의 전투의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48) *Inst.* IV. 3:15, 3:11.

49) Niesel, 전계서, p. 203.

50) *Ibid.*

51) *Ibid.*

52) 이 종성, "교회의 교회성," 『교회와 신학』, 제6집(1973년 11월), p. 18.

53) *Ibid.*

54) Niesel, 전계서, p. 207.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났으며 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의 피해와 물리적 손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승리의 역사를 전승해 내려 왔다. 교회 자체로서는 이 싸움에 전디며 이겨 나갈 수 없다. 이 인내력은 현존하는 교회 자체에는 없다. 다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 교회에 약속된다(빌 4:13).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같이 투쟁하는 교회의 총사령관으로서 대장이 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모든 대적보다 우세할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치 아래 모여 투쟁할 때에 그의 도움을 믿고 승리자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교회는 죽음 한복판에서 살아남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모든 절망과 죽음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다.⁵⁵⁾ 칼빈은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치열해지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에만 의존하며 그리스도의 뒷바침을 받는다. 이것 하나만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에 충분하다. 즉 우리는 한 분의 지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지도자는 패할 수 없으며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승리에 승리를 거두신다.⁵⁶⁾

칼빈은 교회가 종말적 전투에 돌입해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져올 종말을 동경한다. 이 때에 교회는 모두 투쟁을 벗어나 승리를 얻은 자로서 주님 앞에 있게 된다.⁵⁷⁾

5. 결 론

55) *Ibid.*

56) *Ibid.*

57) *Ibid.*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신적 기관인 것이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어머니 되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의 보호와 치리를 받아야 하며 그의 교훈과 훈련을 끊임없이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누구도 이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사죄 또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복음을 설교하는 것과 성례를 거행하는 것을 방편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편이 곧 우리가 교회를 분별하는 데 쓰여질 한 표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또 순수한 심정으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교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관에서 정해진 법대로 성례전이 집행되는 교장이라면 그 곳이 곧 교회인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교회의 본질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의 평생을 개혁 교회의 조직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압력에 싸여 있는 채 아직 개혁주의나 복음주의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그의 청중에게 미사에 대신하는 설교로서 미사에서 기대하는 것을 채워야 했으며 날마다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적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가르쳤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요리 문답 교수, 목회,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필생의 노력으로 '잘 정비된 교회' 건설을 위하여 분투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지금 칼빈의 교회 활동과 그의 교회론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먼저 교회가 그 성경적 본질적인 면에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며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교회가 그 기능적인 면을 제대로 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본질론에 입각한 자체 개혁이 끊임없이 계

속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허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허를 얻은 자니라.”(벧전 2:9, 10)